불가리아(Republic of Bulgaria)

2004. 2

해외경제연구소

面積	11.1만 km^2	貨幣單位	Leva
人口(2003)	7.8백만 명	환율(2003)	1.728Lv/US$
GDP(2003)	203억 달러	會計年度	1.1～12.31
1人當GDP(2003)	2,600달러		

1.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e
경 제 성 장 률	2.3	5.4	4.0	4.8	4.4
재 정 수 지/G D P	-0.8	-1.1	-0.9	-0.7	0.0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2.6	10.3	7.4	5.8	2.2

자 료 : EIU Country Report

□ 낙후된 산업구조

o GDP 중 1차 산업 비중이 12.5%이며 농업은 담배·과일 등이 주요 생산품이며, 제조업은 과거 소비에트 블록에서 중공업에 특화되었던 구조적 문제, 낙후된 설비, 미흡한 구조조정 및 민영화 추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음.

o 취약한 산업구조와 과다한 외채 등 경제구조적 요인과 경제개혁에 대한 각종 이익집단의 반발로 인해 동국은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체제로의 경제개혁 성과가 미흡했음.

□ 지난해에 비해 성장률 다소 둔화 전망

o 2002년 동국 경제의 성장률은 4.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3년에는 민간소비와 고정투자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4.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민간소비는 실질임금의 상승과 실업률 하락에 힘입어 2004년에는 5%, 2005년에는 4%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은 Leva화의 환율 하락과 터키시장의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o 수출여건 악화와 중앙은행이 민간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으로 인해 2004년의 GDP 성장률은 4.1%로 전망되며, Leva화의 환율 상승과 수출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면 2005년의 성장률은 4.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임금과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

o 실질임금의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Leva화가 유로화와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산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역부문에서의 임금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보임.

o 2003년의 수확량 부실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적임. 현제처럼 유로화와 Leva화가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경우 불가리아산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재정수지는 균형을 유지

o 2003년 10월까지의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75% 증가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기업대출도 45% 증가하였음. 2003년의 GDP 대비 적자는 0%로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외환 보유고도 상승추세임.

o 실업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는 불가리아의 주변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원인으로 보임. 2003년 9월의 실업률은 12.76%로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나 반면, 장기실업자와 구직포기자가 수십만에 달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정부의 구직 프로그램보다는 경제발전에서 생기는 민간구직이 많아지고 있음.

나. 국제경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e
경상수지	-652	-702	-842	-682	-1,495
경상수지/GDP	-5.0	-5.6	-6.2	-4.4	-7.4
상품수지	-1,081	-1,176	-1,581	-1,595	-2,229
수출	4,006	4,825	5,113	5,692	7,225
수입	4,087	6,000	6,693	7,287	9,454
외환보유액	2,892	3,155	3,291	4,407	6,071
총외채잔액	10,000	10,100	9,600	10,300	11,400
총외채잔액/GDP	77.2	80.2	70.6	66.2	56.4
D.S.R.	19.0	16.2	17.2	14.2	10.2

자 료 : EIU Country Report

□ 취약한 산업구조로 대외거래 불균형 지속

o 통화위원회의 조정하에 Leva화는 유로화와 고정환율제[1]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중앙은행 (BNB)의 결정권은 제한적인 상황임. 은행 대출은 상승추세이며 이를 유지할것으로 보여짐. 국내수요가 늘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BNB는 경상수지 적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수요성장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축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보임.

o 정책의 초점은 EU 가입조건 달성과 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맞추어져 있음. 2003년도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2.2배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에도 16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수입 증가로 인해 관광시즌이 시작되어도 경상수지적자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경상수지적자가 GDP 성장을 저해하고 주식시장의 성장도 방해하고 있음.

□ 달러화 약세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

o 2003년의 무역 적자는 상반기에만 1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02년 전체 상품수지 적자가 6천만 달러인데 반하여 2003년 9월까지의 상품수지

1) Leva1.95583:€1

적자는 15억달러를 기록하였음. 유로에 대한 달러환율 하락이 주요원인이기는 하나 유로 환산으로도 2배 가까운 적자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비재 수입의 증가율이 원자재와 투자재의 증가율을 능가하고 있음.

o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능가하는 수입의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3년에는 7.4%까지 상승했으나 2004년에는 6.1%로 점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는 만큼 재정면에서의 대외적자가 외채 상환에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정치·사회동향

□ Simeon 전국왕 체제의 불안 증가

o Simeon 전국왕이 이끄는 국민운동연합(SNM)과 권리·자유운동(MRF)와의 집권연정은 지지율하락과 내부 갈등에 빠져있음. SNM은 최근의 지방선거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으나, 야당인 불가리아공산당(BSP) 또한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데에는 실패하여 2004년 조기 총선거의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총선거는 2005년 중순이 될 전망임.

o 2003년 10월의 지방시장선거에서 여당인 SNM은 7%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2001년 의회선거때의 4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MRF는 9.4%의 지지율을 기록함으로서 여당 연합내에서의 힘이 더욱 커짐.

o 현재로서는 중도우파인 민주연합의 힘(UtdDF)이 정부 정책과 제일 가까운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두 정당의 사이가 좋지 않아 연합은 힘들어 보임. BSP는 지방선거에서 최다지지당이 되었으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한만큼 상태를 관망할것으로 보임.

o SNM의 낮은 지지율과 연합내의 갈등은 결국, 총선거를 2004년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이며, BSP는 MRF와 연정을 이루어 정권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됨. BSP정권은 현재의 통화위원회를 유지시키고 EU 가입에 대한 정책 또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적자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고, 구조개혁에는 열의가 덜할 것으로 보임. 또한 친미정책이 재고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EU 가입을 위한 의무조항과 통화위원회의 견제로 인해 BSP 정부가 경제정책을 변경하는 부문은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친서방 정책과 EU 가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o 2004년 5월 불가리아는 NATO에 가입할 예정이나, 2007년 EU 가입을 협상중인 루마니아, 터키, 불가리아의 경우 가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임. EU 위원회 쪽에서는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강화, 사법제도의 강화, 공기업들의 민영화 촉진, 옛 소련시절의 핵발전소 정화 및 폐쇄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5년 예정인 총선거에서 좌파인 BSP로 정권이 이동했을 경우 이들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태임.

o 불가리아는 루마니아, 터키와 함께 2007년에 EU에 가입할 예정이지만, 2004년도 EU 신규가입국가들에게 EU가 요구한 개혁사항들을 볼때 루마니아의 개혁이 늦어지고 있어서 불가리아의 2007년 가입이 함께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 기타 요인

o 불가리아가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450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EU 국가중 일부에게 비난받고 있는 점과 앞으로 이라크에서 불가리아 군인의 희생자가 나올 경우 정부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음.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대미관계는 호전되어 미군기지 주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o 발칸지역내 정정 불안의 우려는 다소 있으나, 동국이 인종·종교 등의 문제로 대내외적으로 직접 분쟁을 겪을 요인은 별로 없음.

3.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o OECD: 5등급(2002. 1)
o I.C.R.G: 52/140(2002. 4) → 62/140(2003.12)
o I. I: 70/145(2001. 9) → 60/172(2003. 9)
o Euromoney: 74/185(2002. 3) → 66/185(2003. 9)

□ 국제신인도 개선 전망

o Moody's : B1(2002. 12) → Ba2(2004. 1)
o S&P : BB(2002. 12) → BB+(2004. 1)
o Fitch IBCA : BB+(2004. 1)

□ 경제정책 운영의 신뢰성 증가

o 1998년 IMF와 차관공여협상 타결 이후 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화관리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재정수지 관리로 경제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

□ 외채규모 안정적 수준 유지

o 동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한 외채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2003년의 총 외채규모는 EU 가입조건(GDP의 60% 이내)을 충족시키는 56.4%이며 D.S.R.도 10%선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

4. 요약 및 전망

o 1997년 통화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안정적 성장세 유지, 물가안정 유지, 안정적 재정수지 관리 등 거시경제의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2003년부터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요인임.

o 그러나 Simeon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 증가, 집권연정 내의 갈등이 만연한 부패등과 함께 동국의 정치·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o 2005년의 총선거에서 좌파정당인 BSP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EU 가입을 위한 개혁정책의 기본 골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기 타>

가.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0년 3월 23일(북한과는 1948년 11월 19일)

□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협정('90), 항공협정('95), 이중과세방지협정('95), 무역협정('96)

□ 교역현황

단위 : 천 달러

	2001	2002	2003.11.	주요 품목
수 출	21,557	28,536	46,942	자동차 및 부품, 통신기기, 기계류
수 입	9,745	14,861	17,073	섬유류, 광물, 잎담배

자료 : KOTIS, 한국무역통계.

□ 해외직접투자현황(2003년 12월말 현재) : 3건, 2,962천 달러